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February 7 2025 Vol. 947

기독일보–센터메디컬 MOU 체결

지역교회 위한 따뜻한 동행
센터메디컬, 위브릿지 교회 목회자 · 사모 의료 지원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기독일보와 센터메디컬 그룹이 남가주 지역 시니어의 건강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하며, 협력을 통해 지역 교회들과 함께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4일(화) 오후 12시 30분 부에나팍 소스몰 본관 6층 센터메디컬그룹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된 내용은 ▲ 공동 목표: 남가주 지역의 시니어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 기독일보와 협력하여 지역 교회들과 함께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건강 세미나 개최 ▲위브릿지 네트워크에 소속된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제공▲지역 사회 선한 영향력 확대 ▲협약 내용의 진행 상황 점검, 개선 방안 논의 ▲건강 세미나 및 검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소통 등이다.



4일 오후 12시 30분 기독일보와 센터 메디컬 그룹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관계자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 기독일보



4일 오후 12시 30분 기독일보와 센터 메디컬 그룹이 남가주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메디컬그룹과 기독일보는 한인 시니어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기독일보가 주관하는 '위브리지 교회' 지원에도 동참하게 된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이러한 교회들을 후원하며, 신앙을 중심으로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독일보 관계자는 "센터메디컬그룹과의 협력이 많은 한인 미자립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독일보와의 협약은 단순한 의료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과 동시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독일보와 센터메디컬그룹은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한 더욱 깊이 있는 협력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센터메디컬그룹은 시니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무관심·무책임·무감동의 시대, 눈물·회개·실천으로 타개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합 3:2)라는 주제로 '2025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1월 31일(금)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와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되어, 1천여 명의 LA 지역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진행된 예배는 국윤권 목사의 사회,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개회기도에 이어 강준민 목사가 "국가를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느헤미야 1: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느헤미야가 모국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며, 금식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지닌다고 했다.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난다."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시기 위해서는 또 우리를 도와줄 나라들, 왕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유엔과 수많은 나라들이 도왔다. 왕들이 도운 것이다. 위기 때마다 열방을 움직이시고 많은 나라들을 움직이셔서 우리나라를 도운 것이다"라고 했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합 3:2)라는 주제로 '2025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1월 31일(금)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북한의 처절한 실상!
꽃제비의 삶을 그리는 인권영화!
분노의 강
이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교회를 찾습니다.
미국 교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영화
관람자에게는 전세계 유일한 HVM 전도코인 100개를 무료로 지급합니다.
김은목 목사 1.213.249.2467
이원제 장로 1.213.257.6442
서울본사 임영술 목사 010.5336.0977
국제문화예수선교회
Heaven Maranatha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 환영 ksmdanbi@naver.com
카카오톡 QR코드

“디아스포라 교회들 일어날 때, 조국 구해주실 것”

→2면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에 이어

그는, 중보기도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부흥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며, 축복을 지키고, 확장하고 나누는 길에 대해 전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지키고 유지하고 확장하고 나눌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 세 가지는 겸손, 성숙, 그리고 하나 됨이다. 우리 민족이 받은 축복을 확장하고 나눠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어서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의 환영인사가 있었다.“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한다. 근간에는 LA 근교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삶의 터전을 잃고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는 없다는 생각에 오늘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이다. 6.25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국가의 존폐가 어려운 적도 있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역사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예배는 최학량 목사(이승만 기념사업회 LA지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강태광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기도회는 총 5가지 주제로, 5그룹이 나와 3분 동안 기도 챌린지를 하고, 5분 통성기도한 후, 2분 마무리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 목사는 제1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를 주제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의 불꽃을 점화했다.

“이렇게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새해를 맞아 본 적이 없다. 한국 뉴스와 유튜브를 따 끊었다. 2025년도의 첫 희망은 이 기도회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를 주의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바꾸어주실 것이다.”

김은목 목사(LA평화교회)가 한미동맹’을 위해,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가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심진구 목사(예비역 기독 군인 연합회)가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김은목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의 등불을 밝히지 못한 문제 아닙니까?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데 매몰되어 제단의 등불을 꺼버린 목사들의 잘못 아닙니까. 성도들이 성도 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잘못 아닙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복음의 나라,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흘린 핏값으로 지켜온 우리나라,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제2기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제2기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를 이끈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KCMUSA 이사장)는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했다.

“먼저 교회 가운데 정의와 진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성역을 흘러넘치는 정의와 사랑과 진실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넘쳐나게 하소서. 한국교회 손을 붙들어주옵소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듯, 수렁 가운데,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어서 김일형 목사(새생명 오아시스교회)가 ‘한국교회의 회개와 대각성’을 위해,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한국교회의 기도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회복’을 위해 김미영 전도사(주님의 영광교회 중보기도팀)가 기도했다.

제3기도: 미국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소서!

‘제3기도: 미국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소서!’를 이끈 민경엽 목사는 트럼프 목사의 장점이 역사하길 기도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장점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서 총알이 귀에 스친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외칠 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저 말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2021년 이전 정부 하원 개회식 때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의원이자 목사라는 사람이, ‘인도 브라만의 이름으로, 그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다. 이번 취임식에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미국이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했다.”

민경엽 목사의 도전에 이어, ‘미국 새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미미송 박사(Reprogram 미션대표/JAMA GLDI 공동 창설자)가, ‘새 정부의 각료’를 위해 진건호 목사가, ‘각 주의 주지사와 주의회’를 위해 한현종 목사(크랜셔 장로교회)가 기도했다.



제3기도: 미국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소서!’를 이끈 민경엽 목사는 트럼프 목사의 장점이 역사하길 기도했다. ⓒ기독일보

제4기도: 미국의 성경적 가치관 회복

제4기도는 ‘미국이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박은성 목사가 도전의 메시지를 나누고, ‘미국 교육의 기독교 가치관 회복’을 위해 안현숙 목사(CBS 중보기도팀)가,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 교회)가, ‘세계선교사명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김요한 목사가 기도했다.

제5기도에서는 LA화재의 수습 및 회복을 위해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가 도전을 나눴고, ‘화재 피해자, 소방대원, 복구’를 위해 최창학 장로(연합선교교회 원로 장로, 성시화 재정국장)이 기도했다.

이철주 목사(성시화 사무국장)의 광고, 새생명 비전교회 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같은 날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한기홍 목사는 같은 본문(느 1:1-11)으로 “기도로 나라를 지키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가 존 낙스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기도의 능력을 환기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국가는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대상 29:11) 성경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남북 전쟁으로 남북이 나눠졌을 때,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에 슬픔에 빠져 기도한 모습과 오늘의 시대적 경향-3무 시대, ‘무관심, 무책임,무감동’과 대조하며 크리스천은 책임을 질 줄 알고, 감동을 받을 줄 알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나?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남가주에서 기도할 때 전세계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날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전세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사용하셔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이번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OC교협이 주관하고 남가주 교협, 각 지역 목사회, 각 지역 여성 목사회, 각 지역 장로회, 청교도 기도 동역자 기도회, JAMA,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대회, 미주 한인 군목회, 세기모 서부 지부, 월드쉐어 USA, 국제 교육 선교법인 꼬레아(COREA), 남가주 예비역 기도 군인회에서 주최했으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업회, 월남전 참전 전우회, CA월참 전우회 및 각 기독 언론 언론에서 후원했다.

부모의 권리와 MZ 세대 자녀 교육

2월 15일(토) 오전9시-오후3시 LA 평화교회서 개최

제4차 ‘법과 교회’ 컨퍼런스가 오는 2월 15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LA한인타운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열린다.

브래드 대쿠스 박사(PJI 설립자 및 대표, 변호사), 마이크 페퍼 변호사(PJI 남가주 상임 변호사), 주성철 교수(PJI 한국부 담당자, 교수)가 ‘오늘날 변화하는 문화 가운데 교회와 사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공립학교에서의 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종교생활’, ‘아동 보호 서비스가 당신 문을 두드리기 전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상은 목회자,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학부모, 교육부 부장 등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된다.



제4회 ‘법과 교회 컨퍼런스’가 2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개최된다. ⓒ태평양 법률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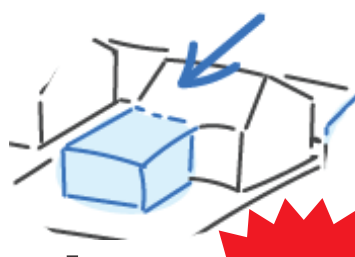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주성철 목사(714)640-7471)에게 하면 된다.

이 컨퍼런스는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와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후원한다. 김민선 기자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Water Damage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다윗에겐 물맷돌, 저에게는 'IT'와 '테크놀로지'"

제임스 구 교수(GMU), 글로벌 비전 교회 개척
"이 시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제임스 구 교수(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대표)가 글로벌 비전 교회를 부에나 팍에 개척하고 지난 2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개척 감사예배에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했다.©기독일보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제임스 구 교수(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대표)가 글로벌 비전 교회(Global Vision Church)를 부에나 팍에 개척하고 지난 2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개척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국제총회 총회장인 신승훈 목사를 비롯해 총회 소속 목회자들과 LA북쪽,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라스베가스에서 교회 개척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교회 본당이 가득 차 복도에까지 줄이 이어졌다.

안성진 목사(생명나무선교회)의 기도, 김영진 사모(고 김광신 목사 사모)의 축하 메시지,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이정현 목사(크리스천 비전 대표), 변성수 장로(푸른초장선교회)의 축사에 이어, 함완구 목사(GMU 전 동문회장)가 성경을 봉독하고, 신승훈 목사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신 목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장면에 대해, "천국 열쇠를 주신 목적은 3가지가 있다"며, "첫 번째, 천국 들어오라고, 두 번째,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천국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영혼들을 맴으로, 내 가족, 우리 민족, 열방이 같이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

이어서 이성희 목사(California University of Mission 총장)와 이병만 장로가 권면했다.

이성희 목사는 "이 시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시대를 앞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온 땅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라고 권면했다.

이병만 장로는 "애틀랜타와 LA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신학교 초대 이사장을 하면서 신학생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며, 구 목사의 지난 사역을 통해 축적된 경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거라 격려했다.

"50여 년의 삶을 통해, 이민교회를 보면서, 미주한인회 날 책자를 만들면서, '길 위에 길을 내다'라는 16인 위인전을 쓰면서 느낀 것이 있다. 훌륭한 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구 목사님에게 축적되고 훈련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 믿는다. 내가 세운 동역자들이 위기에 때 나를 일으킬 자이다. 많은 지도자가 쓰러지는 이유는 동역자가 없고, 동역자를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학교와 교회를 함께 더불어 해나가는 선교가 되길 축원한다."

권면사에 이어, 목회자 임명식, 김남진, 이진성, 에스더 유, 최기숙, 김종국, 송민주 레베카, 박순민, 오해영, 사무엘 Lui 전도사 임명식, 이요섭, 캐더린 리의 선교사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그래이스 글로벌 비전 스쿨의 'First Day in School from Afghanistan' 영상 및 유튜브 다국어 콘텐츠 사역 상영에 이어 제임스 구 목사가 인사하고 비전을 선포했다.

다윗에겐 물맷돌, 저에게는 'IT'와 '테크놀로지'

구 목사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주었지만 안 맞았다. 제일 잘 맞는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갖고 싸웠다.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한 것뿐이다."

"글로벌 비전 교회는 교육, 봉사, 복음선포를 통한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은, 교육 및 선교단체로 시작한 플랫폼 교회이며, 물리적 교회"라고 소개했다.

그는 팬데믹 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면서 여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상황과 또 선교지 MK 및 현지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학업이 중단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K-12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선교 플랫폼인 그래이스 글로벌 비전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학교가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사립학교로 등록되어 있고, 국제 기독교 교육 협력 기관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의 회원이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클라우드 방식(asynchronous)을 병행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목적이 아닌 선교의 도구

그는 "교육은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선교지에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선교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 보딩 스쿨에 초청해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고, 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비자를 비롯해, 모든 제도적, 법적 부분들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 선교를 위한 직업 교육

구 목사는 "선교지 현지인들의 자립과 봉사를 위해 전기, 건축, 배관, 사회복지, 헬스 케어 등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주는 전문 직업 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역을 통해 길러진 전문 사역자들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비전을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백만 손가락 선교 운동(Million Click Movement, millionclick.org)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심기도 후, 소프라노 에스더 구(제임스 구 목사 사모)의 헌금송에 이어 박호성 장로가 광고하고, 신승훈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매 주일예배는 주일 저녁 7시 부에나팍 워십 센터에서 드리고 있으며, Youtube@Global Vision Broadcasting 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교회 웹사이트: globalvision.church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21,115, Buena Park, CA 90621
예배 및 모임 안내
목요일 병원 예배(한국어): 매주 목 오전 9:30, Green Field Care Center Fullerton

시니어를 위한 성경대학

효사랑 선교회가 시니어들을 위한 성경대학을 오는 12일(수) 오전 10시 개강한다. 시니어 성경대학은 성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시니어들에게 정직한 믿음,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개설되었다.

성경대학은 시니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통해 믿음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이자 할머니로 손자, 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재미있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 믿음의 유산이 되는 데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성경대학은 시니어는 누구나 등록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가족도 함께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4개월 120 달러이며 매월 30 달러씩 분납도 가능하다. 교재는 무료로 제공된다.

장소 : 7342 Orangethorpe Ave #B115 Buena Park CA 90621



트랜스젠더, 미국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 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성경적 가치관 수호와 '여성 인권' 증진 행보를 이어갔다.

행정명령 주 내용은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한 학교에는 연방자금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배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라는 이름의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부터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은 집무실을 벗어나, 여성 청소년·어린이 스포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앞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보호하고, 남성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며 다치게 하고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제부터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성 복서가 금메달을 강탈한(stole)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잊을 수 없다"며 "이 여성 선수는 너무 잔인하게 폭행당한 후 46초 만에 빼앗겨야 했다(forfeit)"고 언급했다.

행정명령 내용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여러 교육 기관과 스포츠 협회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며 이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모욕적이고 불공정하며,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천명했다. 강혜진 기자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 비전 세미나

초대 합니다.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를 위한 의료 전문인 선교 비전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그 외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3시(애너하임) / 2월 18일(화) 오후 3시(LA)

인사 및 격려사 ▶ 주제 발표 1 ▶ 주제 발표 2 ▶ 주제 발표 3 ▶ 질문과 답변 및 네트워킹

주제 발표 1
한의를 통한 선교 비전
선교의 개념과 한의학을 통한 의료 전문인 선교 사역의 역할을 소개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유와 선교적 접근에 대한 발표.

주제 발표 2
선교 현장에서의 한의학 전문가 사례
선교지에서 한의학을 통해 질병 치료와 영적 사역을 병행한 사례발표.
선교지에서 한의를 통한 선교적 경험 및 성공 사례 공유.

주제 발표 3
한의학 입학, 정부학자금 보조 및 장학금 안내
한의학에 대한 입학 절차, 자격, 과정, 졸업 후 진로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제도 소개.
장학금 제도 및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소개.

South Baylo University
홈페이지 https://southbaylo.edu

장소 및 참가 문의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링크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하신 모든분 에게는 한의를 통한 선교방법의 eBook을 드립니다.
신청 링크: www.southbaylo.edu/missionary
- Anaheim Campus: 1126 North Brookhurst Street Anaheim, CA 92801
- Los Angeles Campus: 2727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
참가 문의 및 상담: (714)533-1495(Seon Kim) ※특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입학 지원시 특별 장학금 지원

-주최: 사우스베일로 대학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베델교육재단

교회 안의 남성 살리기 프로젝트

남성 소그룹 교재
남성 사역의 획기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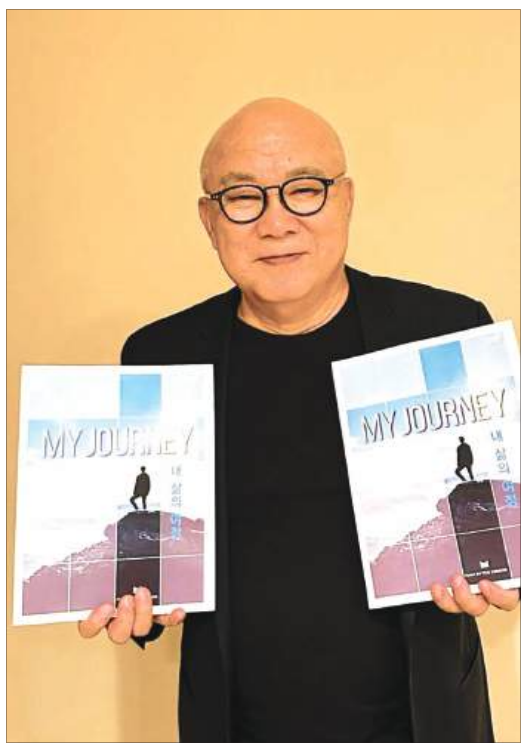
남성 사역 단체 Man in the Mirror Korea (MIM KOREA)에서 한인 교회에 남성 사역을 소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맨인더미러(Man in the Mirror Men's Ministry)는 1986년에 '전세계의 크리스천 남성들이 신앙을 기반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한다'는 사명을 품고 시작된 단체이다.

맨인더미러 한국지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병일 목사는, "오랜 사역을 통해, 지속적인 소그룹 훈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같이 나눌, 신앙을 지닌 구별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남성 사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성들을 위한 소그룹 교재 『My Journey』(내 삶의 여정)가 한국어로 번역해 우리 한인 교회에 소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자리를 찾지 못하던 남성 사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병일 대표에 따르면, 남성 사역은 담임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남성 사역을 통해,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하면 그들이 중간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며, 목회자들의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맨인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일 목사가 오는 3월 24일 LA사랑의교회에서 남성 사역을 소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 대표는 이 사역에 대해 "남성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 언저리를 맴도는 많은 남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며 교회 출석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남성들의 심장에 주님이 들어가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는, 목사님과 평신도 리더들뿐 아니라 아내들도 이 세미나를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남성 소그룹의 성공은 아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며 그들이 첫번째 수혜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남성 사역 세미나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사랑의 교회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점심이 제공된다. 예약은 미주기독일보 213) 739-0403를 통해서 하면 된다. 조셉 리 기자

주소 : 2610 W. Olympic Bl. (Olympic & Elden) 문의 : 이병일 목사 213-435-6009 E- Mail : bryanlee-mog@yahoo.com

효사랑 선교회 시니어대학 봄학기 개강

2/11(화) 봄학기 개강
매주 화·목 9시-2시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이 2월 11일(화)부터 2025년 봄학기를 개강한다. 이번 봄학기는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라는 학훈의 시니어대학은 신앙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신앙을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16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봄학기는 신앙적, 신체적, 지성적, 감성적 측면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리큘럼으로 △성경파노라마 △음악 교실 △난타 교실 △힐링댄스 △하모니카 교실 △A.I & 스마트폰 △영어교실 △악기 에어로폰 △미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 학기부터 A.I. 교실도 개설된다. 일상에 필요한 A.I.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로 대화형 A.I.와 생성형 A.I.를 배우게 된다.

미술 강좌는 12주 코스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며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효사랑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대학'을 검색하면 동영상 강의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멕시코 앤세나다에 있는 양로원과 여성 갱생원, 청소년 크리스찬 대안학교에 1박 2일 일정으로 단기 선교도 간다. 지난 학기에는 겨울 방학 동안 멕시코 앤세나다 양로원과 여성 갱생원, 청소년 갱생원을 방문하여 그 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선교도 다녀왔다. 등록금은 매월 100달러이며 점심이 제공된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대학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효사랑선교회** 김민선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정기총회

회장 정해진 목사, 부회장 정완기 목사, 총무 최순길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이 지난 29일(수) 오후 4시 하늘문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예배, 총회,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최영봉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정완기 목사가 기도를 맡고, 한기형 목사가 ;모르드개여 힘을 내라;(에스더 3: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정완기 목사의 색소폰 특주와 찬송이 울려 퍼졌고, 정해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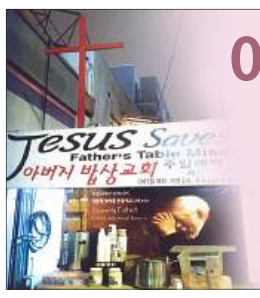
총회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이 불참함에 따라, 임시의장으로 지용덕 목사가 선출됐다. 회원 점명 결과 총 14명 중 8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개회가 선언됐다. 총무 정완기 목사가 전회의록을 보고한 후, 회계 최영봉 목사의 회계 보고가 이어졌으며, 두 안건 모두 가결됐다.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는 정완기 목사의 발언에 따라 참석자에 한해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회장에 정해진 목사, 부회장에 정완기 목사, 총무에 최순길 목사, 서기에 민종기 목사, 회계에 최영봉 목사가 각각 선출됐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신임 회장 정해진 목사는 취임 인사를 전한 후, 샘신 목사(현 교협 회장)와 권영신 장로(장로회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만찬은 강남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신임 회장 정해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최영봉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하여 법원 결정문이 1월 31일경 나올 예정이며, 2월 초에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춘계 및 추계 영성 수련회는 임원진에 일임하기로 결정됐으며, 성지순례 추진 건은 지용덕 목사의 동의와 최순길 목사의 제청으로 가결됐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최영봉 목사가 선임됐다.

최영봉 목사는 KCMUSA(대표 민종기 목사)에서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성지순례를 소개하며,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당신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
■ 화요일 오후 5:30
■ 금요일 오후 5:30
■ 주일 오후 2:30
회복기도의 집
박태욱 목사 T.(213)500-0480
3054 W 8th ST. STE 204, LA, CA 90006
1. 치유와 축사
2. 대적기도
3. 거룩한 신앙생활
4. 일반적인 영적전쟁
5. 차원높은 영적전쟁
6. 마지막 시간을 위한 훈련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행복이란,
소중한 이와 좋아하는 곳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
당신의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000명 시니어의 현명한 선택
새로운 행복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3098

‘세이브 코리아!’ … 겨울비 뚫고 광장 메운 이들의 간구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서울 · 부산 등 전국에서 열려



1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네 번째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역광장 등에서 동시에 열려 수십만의 성도가 결집했다. 사진은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부산집회 모습. ⓒ세이브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후 맞은 첫 주말인 1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네 번째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역광장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수십만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결집했으며, 연사로는 국민의힘 박수영·김미애 의원, 정치 유튜버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선생, 세이브코리아 공동대표 손현보 목사,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 거룩한 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 이호 목사 등이 나섰다.

손현보 목사 “좌파 장악된 사법부, 법률과 양심 사라져”

특히 부산 집회는 전한길 강사와 김성원 대표 등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들이 잇달아 연사로 나서, 빗속에서도 엄청난 열기 속에 진행됐다. 손현보 목사는 “지금 이 사회는 종북 극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법률과 양심, 상식은 사라졌기에 이제는 누구도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킨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은 남미의 마약 카르텔보다도 지독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무지막지하게 잡혀 감옥에 갇혔다. 이재명의 재판은 몇 년을 끌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한 달 만에 해버리겠다고 한다. 종북좌파들이 우리나라를 벌레처럼 갉아먹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전체주의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 행정부를 29번 탄핵시키고, 대통령 대행의 대행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한다”며 “위장된 민주주의 종북좌파들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며, 기업을 파괴하고 세금을 갈취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사회운동을 민주주의로 위장한다”고 했다. 또한 “카르텔 이익 실현의 악의 도구가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깨어나지 못하면 SNS와 문자 하나 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계엄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다. 지금은 총성 없는 체제 전쟁 중이다.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세력, 한미일 동맹과 북중동맹 세력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서울집회에서 2, 30대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세이브코리아

그라운드씨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정체가 뭔가”

보수 논객 그라운드씨(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위협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이 하나 돼 마침내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관위, 중국 공산당, 민주당, 민노총 등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가 공산화돼 갈 때 ‘우린 공산주의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고 외쳤다. 토지개혁, 교육개혁, 대통령 직선제, 반공,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주권을 세웠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사회주의 도입을 경쟁할 때 시장경제체제를 외친 영웅이다. 온갖 수모 속에 김일성과 중국과 전쟁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박정희의 시장경제·반공·자유라는 가치로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기 위해 목숨 걸었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언론, 여론, 산업, 법조계, 정당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안보 위기다. 4년간 기업 기밀 1백여 건이 유출됐다. 중국 공산당의 방산 기술 해킹 시도는 1년에 약 3천 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중국 간첩을 처벌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 도대체 정체가 뭔가”라고 했다. 이어 “간첩을 잡아야 할 이 나라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한 번의 대질 신문 없어 얼치기 기소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온 사법기구를 장악했다”며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등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랑이 중국에 의해 무너진 이 때, 이 위기를 역전할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비상계엄 비판했지만, 이후 깊은 뜻 알게 돼”

전한길 강사는 “대통령이 야당의 폭압적·비합법적 방법으로 탄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 구치소에 갇혀 있다.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 정도(폭우)는 견딜 수 있지 않은가. 광화문과 여의도, 서울구치소 앞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29차례의 탄핵,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 행정부 마비의 실체를 알았고,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대통령 불법 체포·구속을 보며, 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임을 알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비상계엄 직후엔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고 지금은 그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대통령 직무가 복귀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못다 한 개혁을 이루고, 비상계엄으로 ‘계몽’돼 (실체가) 드러난 선관위·공수처·사법부·헌법재판소까지 함께 개혁해나가자. 남은 3년간 제2의 건국이라 생각하고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21세기 디지털 선진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을 새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공산주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셔”

서울 집회 연사로 나선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본주의 무신론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 없던 제가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아닌 복음을 심어줘야 한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이 땅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거짓말하고 분열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상을 대적하고,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쓴 편지를 읽으며 “하실 필요 없는 고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세이브코리아 기도대성회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송경호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S사랑하는
M마음으로
G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오픈뱅크-오픈청지기재단, LA 지역 산불 피해 성금 쾌척

구호 성금 20만 달러
파세디나 커뮤니티 재단에 전달

한인 사회 및 여러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을 실천을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LA 지역 산불 지진 피해지역을 돕는 성금 20 만달러를 쾌척했다.

오픈뱅크(행장 민 김)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 30 일 LA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 성금 20 만달러를 파세디나 커뮤니티 재단(Pasadena Community Foundation, 이하 PDF)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PCF의 이튼 산불 피해자 돕기 펀드(Eaton Fire Relief and Recovery Fund)를 통해 이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오픈뱅크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이후 여러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을 살펴보면서 기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 왔고 산불 발생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물색해 왔다. 이튼 산불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PCF 는 산불 발생 후 빠르게 피해지역에서 활동하면서 20 여개 비영리단체를 지원, 쉘터로 대피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자 공급과 어린이들의 돌봄 서비스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이미 800 만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마련해 임시 거주처 마련, 주택 복구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준비하는 등 중장기적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쓰고 있다.

오픈청지기재단 이사회는 이번 재단의 성금 기부를 최대 30 만달러 까지 승인함으로써 이번 20 만달러 기부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LA 지역 산불 지진 피해지역을 돕는 성금 20 만달러를 쾌척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PCF는 자체적으로 든든한 재정을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이번 재난 상황에서 이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빠르게 활동을 전개했으며 웹사이트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여러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저희 오픈뱅크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 피해를 입은 이 지역 주민들에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그동안 Covid-19 및 산불,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 성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16 년 블루컷 산불피해를 입은 한인 가정들을 돕기 위해 1 만달러의 성금을 전달했고 Covid-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한인 요식업계를 지원하는 100 만달러 지원 프로젝트, LA 한인회의 3 차와 6 차 구호 기금에 총 6 만달러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때에는 한인회를 통해 Unicef에 10 만달러를 쾌척한 바 있다.

김민선 기자

"이슬람 떠난다" SNS 때문에 3년 구금됐던 이집트 교인 석방돼

이집트 당국은 이슬람을 떠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3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기독교 개종자 압둘바키 사이드 아브도(Abdulbaqi Saeed Abdo)를 석방했다. 그는 기독교 단체의 비공개 온라인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후 여전히 소송 중이다.

기독교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은 2일(현지시각) "다섯 자녀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아브도가 석방됐다. 개종 후 살해 위협을 받아 온 그는 예멘을 떠나 이집트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망명 신청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방 당국은 2021년 그를 구금했으며, 기독교 교리와 이슬람 신학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것을 체포 이유로 언급했다. 여러 구금 시설을 거쳐 이송된 아브도는 석방 전부터 심장, 간, 신장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지막 6개월간 당국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압둘바키 사이드 아브도

그의 사건을 유엔 임의 구금 실무 그룹에 제출한 국제 ADF는 "그는 석방됐으나, 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의 아들 후삼 바키(Husam Baqi)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믿거나 표현할 수 없고 신앙 때문에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ADF의 켈시 조르지(Kelsey Zorzi) 종교 자유 옹호 이사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를 형사 재판도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브도는 구금 기간 동안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 연구원에게서 정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아브도에 대한 처우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투옥은 검열적 신성모독 정책이 실제로 실행된 초현실적 사례다. 한때 무신론자로 널리 알려졌던 알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발표했다.중국에서 파키스탄까지, 러시아에서 시리아까지, 영국에서 이집트까지 자유로운 표현은 우리 시대 전체주의의 부활로부터 긴급히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시리아 반군 정권, 이슬람 개종 및 여성 베일 착용 강요

지난 12월 시리아 이슬람 반군이 14년 만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하자,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BBC에 따르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 HTS,근본주의 이슬람 수니파 반군 세력)는 때때로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알카에다의 분파인 만큼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는 명백한 우려의 원천이다.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부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역 보도에 따르면 중앙 권위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차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소식통은 가톨릭 자선단체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CN)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소수종교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보장을 개인적으로 받았으나, 이슬람주의자들이 대중교통 내에서 성별 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들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시리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새로운 정부의 과도한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마스쿠스가 주목을 받으며, 이전 반군들은 더 평화롭게 행동하고 그들이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슬람주의자들은 다마스쿠스, 알레포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행동을 보였으나 홈스, 하마 같은 소도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며 "이곳은 10개 종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혼합 지역이며, 동네마다 종교가 섞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오후 5시 이후 거리에서 사라진다. 거리에서는 확성기로 이슬람 개종을 호소하며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말하는 지하디스트들이 있다. 두려움은 정말 심하다. 기독교인들은 일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 기독교인으로 구성돼 기독교인 마을로 알려진 시리아의 한 지역은 평화로운 것으로 묘사됐으나, 실제로 이 지역의 여행은 위험할 수 있다. 무장세력이 가끔 도로를 봉쇄하며,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고 소지품을 빼앗기도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시리아 기독교 인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약속이 아닌 현장의 현실이다.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파키스탄, 디지털 범죄 예방법 통과… "표현의 자유 더 위축"



▲2025년 1월 28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 기자들. ⓒDawn

교회와 인권단체 및 언론계, 비판 제기

파키스탄 정부가 디지털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회 및 인권단체,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2025 디지털 범죄 예방 개정법(PECA)'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권리 보호 당국(DRPA)을 신설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고,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공포, 혼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200만 루피(약 1,05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DRPA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에는 허위 정보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됐으며, 누구나 디지털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회 및 인권단체들은 법안이 정부 비판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키스탄 교회의 아자드 마샬 주교는 "우리 공동체는 이미 허위 신성모독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법이 남용되면 기독교인들이 더욱 탄압받을 것이다. 정부가 소수자 박해 사건 보도를 막고 있으며,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키스탄연방언론인연합(PFUJ) 아르샤드 안사리 사무총장은 "정보부가 언론계와 협의하려 했지만, 내무부와 IT부가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PFUJ와 언론 단체들은 이를 '폭압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디지털 인권운동가 니갓 대드는 "정부가 공공 이익과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법 역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부가 원하는 서술만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으로 인해 디지털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파키스탄은 앞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52위를 기록했으며,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5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8위에 올랐다.

강혜진 기자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공산당 통제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 생성형 앱 'R1'을 발표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deepseek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에 인공지능(AI) 생성형 앱 'R1'을 발표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 장악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구글이 개발한 AI '알파고'가 바둑 천재 커제 9단을 이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AI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딥시크다.

딥시크는 민간 기업으로 운영되지만, 그 성과는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를 기존의 저렴한 상품 수출 중심에서 AI, 슈퍼컴퓨팅, 친환경 에너지 같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딥시크는 AI 기술을 더욱 저렴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이익과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이후 중국 정부는 AI 기업들에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보였지만, AI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통제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 맷 쉬핸은 "AI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공산당이 AI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통제하려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쉬핸은 "공산당의 본질은 통제에 있다"며, AI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딥시크는 원래 AI 모델을 활용해 중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 예측을 수행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자 2023년 정책에 맞춰 고급 AI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첨단 컴퓨터 칩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딥시크는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해 AI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딥시크의 량원펑은 미국의 수출 제한이 여전히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칭화대 외교 전문가 쑨청하오는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은 AI 기술의 자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 감시 및 반대 의견 억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율무기 시스템과 전장 전략 등 군사 현대화에도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NYT는 딥시크의 AI 앱이 널리 사용될수록 중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은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20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및 입대 금지



▲관련 보도 화면. ⓒSB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8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입대를 금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식에서도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성이 다른 사람의 욕실과 침실, 탈의실 공유 금지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에도 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후임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이를 폐기하고 다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하원의원 컨퍼런스 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미 백악관은 "군사 임무와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트랜스젠더는 수술 후 치료 완료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그들(트랜스젠더)은 군사 대비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신체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DEI로 인한 군 내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 등의 재검토도 지시했다. 기존 생물학적 성별인 '그(he)·그녀(she)' 외의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 및 잘못된(false) 성 정체성 표현을 금지하고, 군인들이 이성(異性)의 욕실과 탈의실, 침실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행정명령 서명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트랜스젠더 군인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에서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최대 1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 여권에서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섹션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과 여성만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美 국무부는 여권 관련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 섹션에서 남성(M)과 여성(F)만 남겨두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 섹션을 없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삭제됐다.

또 연방 기관에서는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를 사용하고, 성전환 등의 이념을 홍보하는 문구나 정책도 삭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대웅 기자

이슬람에 항의 혐의로 체포된 英 기독교인, 항소 기각돼



이안 슬리퍼. ⓒCLC

지난 2017년 영국 런던 브리지 테러 공격 후 이슬람에 항의한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인 거리 설교자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언 슬리퍼(Ian Sleeper)는 '무슬림을 사랑하라, 이슬람을 미워하라, 예수는 사랑과 희망이시다'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내걸고 '괴롭힘, 불안, 고통'을 야기했다는 혐의로 공공질서법 5조에 따라 체포됐다.

그는 체포 후 13시간 동안 구금됐다. 그는 부당 체포와 불법 구금으로 경찰을 고소했지만 패소했고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2017년 테러 후 긴장으로 인한 공공질서 위험으로 그의 체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슬리퍼를 법적으로 지원한 기독교법률센터(CLC)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CLC는 이번 판결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스러운 후퇴'라며 "최근 시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슬리퍼 씨에 대해서는 '2단계 경찰 관리'가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슬리퍼는 자신이 받은 처우는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결코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라며 "중동 갈등 이후 런던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에 항의하고 폭력을 촉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이 나처럼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일관성은 전혀 없으며, 나에게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한 정의를 추구할 것이며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CLC 최고경영자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슬리퍼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7년 슬리퍼에게 일어난 일은 현재 런던 거리에서 하마스 지지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예언한 셈"이라며 "경찰은 이슬람 시위대가 방해 없이 집단 학살을 요구할 권리를 옹호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안은 '무슬림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말한 단어가 법정에서 무시된다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비판할 자유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미경 기자

성직자들이 정치적이면 안 되는 이유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로버트 파 기자의 기고글인 '성직자들은 정치적이어야 하는가?'(Should priests get political?)를 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은 예상대로 수많은 논란과 함께 시작되었다. 논란이 된 사면 결정, 논란이 된 손짓, 그리고 심지어 논란이 된 설교까지 있었다. 바로 미국 성공회 주교인 마리안 버디(Mariann Budde)의 설교가 그것이다. 버디 주교는 설교 중에 신임 대통령인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며, 그의 행정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민자들과 성소수자(LGBT) 공동체를 향해 '자비를 베풀라'고 촉구했다. 이 설교는 우파 인사들로부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좌파 측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한편, 정치적 논란의 반대편에서는 영국 성공회 가톨릭 교회의 사제인 캘빈 로빈슨(Calvin Robinson)이 낙태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했다고 알려진 '나치 경례'와 유사한 손짓을 따라 했다가 사제직 수행 허가를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행동일까?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왕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정치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본보기를 따라야 할까?

분열된 교회

구약 시대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 있다는 점이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왕 한 사람만 설득하면 사회나 종교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는 '민주적 대표'이며,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곧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어 '반대편'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악(惡)의 화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직자가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놓고 지지하면 교인의 절반을 즉각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EU, 파키스탄에 "인권 문제 해결 실패하면 특혜 무역 지위 위태"



ⓒPixabay

유럽연합(EU) 대표단은 최근 파키스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성모독법, 강제 결혼 및 강제 개종 등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특혜 무역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에 따르면, 올로프 스쿠그 EU 인권 특별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이 일반 특혜 제도 플러스(GSP+)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무역 혜택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EU 대표단은 "현재 모니터링 주기의 중간점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파키스탄은 새로운 GSP+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갱신 경로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라며 "GSP+에 따른 무역 혜택은 인권을 포함한 여러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루어진 진전에 달려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EU의 주요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EU와의 관계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EU는 파키스탄이 GSP+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파키스탄 기업은 2014년 무역 제도가 출범한 이래 EU 시장으로의 수출을 108% 늘렸다"라고 밝혔다.

EU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GSP+ 지위를 통해 파키스탄은 유럽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최소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국이 인권과노동권,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및 '굿 거버너스'(good governance)에 대한 27개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 지난 6월 GSP+ 주요 모니터링 임무를 앞두고 일주일간 파키스탄을 방문한 EU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가장 시급한 인권 및 노동권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GSP+ 무역 제도에 따른 현재 평가를 포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표단은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아잠 나지르 법무부 장관, 잠 카말 연방 상무부 장관, 암나 발로치 외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과 회동했다.

이 회동에서 스쿠그 대표는 신성모독법 적용, 여성 권리, 강제 결혼 및 개종, 납치, 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신념, 언론의 독립,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파키스탄 야히아 아프리디 대법원장과의 회동에서 초점은 사법부의 미처리 사건과 사법부의 성실성과 독립성에 맞춰졌다. 스쿠그 대표의 방문 내내 특사는 국가인권위원회(NCHR)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DI는 전했다. EU 대표단은 "다가올 GSP+ 모니터링 임무의 맥락에서 특사는 파키스탄 당국에 모든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독교인 의원은 "파키스탄 EU 대표부나 파키스탄 정부도 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스쿠그 대사를 만나기 위해 어떤 기독교인 대표가 선택되었는지조차 모른다. 정부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공식 서사를 내세우고 실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골랐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EU 대표부에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방문이 끝나기 전 대표단과의 회동이 주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쿠그 대표는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 인권 및 국제 인도법에 대한 EU의 헌신을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후 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10 / 3부예배 오전 12:00 /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 아동부 (1~5학년) 11:00 AM /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 주일예배(EM) 오전 10:30 / 유년부(K-2) 오전 10:30 /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 주일 2부 오후12:3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 주일 2부 9:30AM / 주일 3부 11:15AM /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 수요기도회 7:30PM /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 주일 EM예배 오후 12: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 목요예배 오후 7:00 /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오전11:00 /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주일 2부 예배 1:30 PM / 수요예배 7:00 PM /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도구 활용 강좌

2월 9일(주일) 개강, 8주 과정



목회와 선교 사역을 위한 AI 도구 활용 5기 및 실무 중심의 Global Vision 강좌. ⓒGlobal Vision Universit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에서는 '목회와 선교를 위한 생성형 AI 도구 활용 강의' 5기를 모집한다.

지난 4기 강좌에서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YouTube 다국어 Subtitle 제작, AI Voice Generator를 활용한 영상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겸비하여 교육했으며, 이번 5기부터 AI 강의와 함께 다양한 목회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강좌가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2월 9일 개강하며, 8주간 지속된다.

주요 강의들은 다음과 같다. ▶현대 교회를 위한 미디어 사역 ▶다국어 선교지 신학 지원, ▶교회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구축, 운영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 ▶건축을 통한 선교 ▶비영리 단체의 Quick-Books 사용법과 회계 및 세무 기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 ▶선교지 교수요원을 위한 실질적, 전문적 강의, ▶ YouTube와 스트리밍, AI 기술을 사역과 선교 활용.

강의는 현장 강의와 함께 Zoom 실시간 및 녹화 강의로 제공되어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사이트를 통해서 강의 영상과 자료들을 제공함으로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의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목회 및 선교 사역에 필요한 실무에 초점을 뒀다.

본 강의를 준비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지난 AI 도구 4기 강의를 통해서 수료한 많은 분들이 목회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추가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에 대한 필요를 요청하여 정식 과정으로 글로벌 비전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라고 강좌를 소개했다.

이번 전체 강의를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구 교수는 신학교 및 경영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김민선 기자

글로벌 비전 강좌신청 링크: https://globalvision.university/2025/01/17/spring-2025-session-1/
장소 : 7342 Orangethorpe Ave., # B115, Buena Park, CA, 90621
Zoom Link Meeting ID 283 891 2085 Passcode: 2025
강의 관련 문의 웹사이트 https://globalvision.university/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
전화: 949-667-0264 ,714-393-4595 (ICMM Center, 문자가능)

GBC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

2/14(금)-2/23(주일) 남가주 6개 교회

미주복음방송(GBC)이 오는 2월 14일(금)부터 2월 23일(주일)까지 남가주 지역 6개 교회에서 '2025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LA 대형 산불 피해자와 전쟁·분쟁으로 고통받는 재난 난민, 지역사회의 자선단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콘서트에는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티켓($20)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www.kgbc.com)에서 온라인 구매 및 전화(714-484-1190)로 구매가 가능하다.

모든 수익은 LA 산불 피해자, 전쟁 난민(미얀마,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지역 사회 긍휼단체(퍼스트 팬귄 선정 10곳), '동행과 상생' 프로젝트(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 양성)를 지원하는 일에 전액 사용된다. 김민선 기자



자선콘서트 일시 및 장소
2/14(금) 7pm 감사한인교회
2/15(토) 6pm 인랜드교회
2/16(주일) 6pm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2/21(금) 7pm 얼바인온누리교회
2/22(토) 6pm 에브리데이교회
2/23(주일) 6pm 충현선교교회

센터메디컬그룹, 설날 맞이 무료 나눔 행사

센터메디컬그룹이 1월 27일(월)과 28일(화) 이틀 동안 부에나파크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날 맞이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첫날인 27일 부에나파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무료 떡국 떡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센터메디컬그룹은 명절을 맞아 떡국 떡을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현장에서는 떡국 떡 외에도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실용적인 선물로 가방, 담요, 주걱을 함께 제공하여 더욱 따뜻했다.

28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료 떡국 식사' 행사를 진행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떡국이 제공되었으며,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떡국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는 정겨운 풍경이 연출됐다. 이 날 행사에서도 방문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가방, 담요, 주걱을 선물로 제공하며 명절의 정을 더욱 깊이 나누었다.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 깊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선착순으로 제공된 떡과 떡국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명절이 외로웠는데, 따뜻한 떡국 한 그릇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메디컬 그룹의 혜택이 궁금하다면 (888) 847-3098 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메디컬 그룹 기사 제공

센터메디컬그룹: www.centeripa.com



설날 맞이 무료 나눔 행사. ⓒ센터미데컬 그룹

[사설]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하는 게 왜 '극우' 인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2월 첫 주말 전국에 메아리쳤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진영 간의 대결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공산주의에 나라를 넘겨줄 것이냐 하는 체제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교계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상기도회는 겨울비가 세차게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겠다는 열망을 기도와 함성으로 표출했다.

그동안의 기독교 집회나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집회를 보면 주 참여 계층이 장년 노년 일색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추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30세대 젊은 층이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확연히 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뀐 점이다. 국가비상기도회가 바로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2030 세대의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깨운 이들 중 최근에 유독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다. 그가 자신의 유튜브 강의 채널에서 탄핵정국의 배경과 실체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밝힌 이후 젊은 층이 제 발로 탄핵반대 거리집회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전 씨가 처음부터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건 아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언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은 미친 짓"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정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있었던 국가비상기도회에 처음 연사로 등단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좋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과 전체·공산주의의 북한 정권이 싫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상기도회에도 연사로 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때 '노사모' 회원이었다고 밝힌 인터넷 시험강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정치권을 향해 연일 쓴 소리를 뱉어내자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선거부정 의혹 발언 등을 내란 선동으로 규정해 고발 조치하기까지 했다.

전 씨의 발언과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는 주류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전 씨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극우의 '음모론'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짙은 경상도 억양에 다소 거친 듯 토해내는 그의 발언은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겐 꽤 불편하게 들릴 소지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권과 언론까지 싸잡아 전 씨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12.3 비상 계엄령 직후 20%대를 밑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급상승하는 현실 앞에서 야권이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는 건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내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애꿎은 사람을 타깃삼아 '마녀사냥'을 하면 결과적으로 화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된다.

최근 민주당과 탄핵을 지지하는 진영, 그리고 일반 언론까지 전 씨를 일관되게 공격하는 호칭이 '극우'다. 그런데 좌우 가리지 않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 소신 발언을 하는 그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게 과연 사리에 맞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72년 9월 독일 뮌헨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에게 무장 테러를 자행해 11명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자행한 게 '검은 구월단'이라는 이름의 극우 테러조직이다. 그에 앞서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351편 요도호를 공중 납치한 '적군파'는 극좌 테러조직의 대명사로 불린다.

이처럼 우든 좌든 그 앞에 극(極)자가 붙는 조직이나 집단의 공통점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명 살상과 테러를 불사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왜 '극우'인가. 언론조차도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정치권이 쓰는 극단적인 용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이런 '갈라치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자주 쓰던 악습 중 하나이나 이것이 역설적으로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준 측면이 없지 않다. 그가 연일 부정선거 의혹과 헌재 일부 재판관의 편향적 이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질수록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선관위 비판 영상 게시 12일 만에 54만 명이나 늘었고, 일부 영상엔 댓글이 10만 개 넘게 달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드러낼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이자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속한 문제다. 스스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소신파"라고 말하는 강사를 '극우'로 매도하는 배경엔 본질을 호도해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키려는 은밀하고도 비겁한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 발언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고 상대에게 '극우'의 꼬리표를 붙이고 좌표를 찍어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나는 '극좌'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병일 칼럼

남성 사역 소개 (2)



이 병 일 목사
맨인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

지난 주에는 제가 남성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와 주님이 주신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이민교회의 남성사역의 현주소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곳 이민교회에 1.5 , 2세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이민교회 대부분은 한국 교회의 연속이며 그 신앙의 기초아래 세워지고 운영돼 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사역은 한국이 1997년 IMF 위기를 경험하며 남자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 소외되고, 경제력으로 유지되던 남자의 위치가 교회 안과 밖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남성 사역은 큰 반응을 보이며 활발한 크리스천 가정을 세우는 운동으로 전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5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Effective Men's Ministry " 남자들 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남성 사역 리더인 맨인더미러(Man In The Mirror)의 패트릭 몰리(Patrick Morley)를 비롯한 여러명의 사역자들의 경험과 전략을 모은 너무도 귀한 책이 이의수, 전의우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책은 수년 후 절판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IMF 위기가 극복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며 외형적으로는 남성들이 그들의 위상을 회복한 것 같이 보이며 남성 사역에 대한 목회자 및 교회 리더십들에게서 절박한 필요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 여성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의 저변 확대가 무서운 속도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휘를 향상시키며 기독교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공간이 제공되며 기도와 헌신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에 적극적인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여성들의 활약과 적극적인 참여는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사역의 무게에 눌리고 있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접근 하기 힘든 남성들의 구원과 그들의 내면의변화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부흥이 제자리를 걸으며 이제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크리스천 남성들의 교회내의 소극적인 참여와 사회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라는 사실을 일 부분의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추천사에서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남성 사역의 부흥은 한국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 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경건한 남성의 영향력은 세상을 바꿀 만큼 지대 하기에 남성 사역은 교회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 혈관 수술 입니다" 라는 추천의 말씀을 기재 하였습니다.

뜨거운 감자, 그리고 golden time 놓칠 수 없는 혈관 수술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후 세상과 교회를 교차하며 살아가던 저와 같은 남자들을 구원 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주님께서 두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도전이었 습니다,

이 남성 사역을 향한 저의 도전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었기에 남성 사역 전체를 좀 더 연구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Fuller 신학교의 연구과정을 늦은 나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남성사역' 대한 논문을 쓰게 되며 미국에 존재하는 Para church 형태의 유수한 남성 사역단체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남성 사역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처음에 언급한 Patrick Morley가 설립한 Man In The

Mirror (MIM으로 표기 하겠습니다) 남성 사역 단체를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MIM 및 다른 남성 사역 단체의 사역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합하고 꼭 필요한 사역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i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웍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철야기도 오후9: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언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중예배 목요 오후 8:00(한어) / 금요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 오후 8:00** (한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진유철 칼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루마니아의 존경받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 15년간 감옥에서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 3년은 햇빛도 없는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짐승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수프에 매일 마약성분을 탔고 그는 점점 성경 내용도 잊어버릴 만큼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루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첫 문장 다음부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서글펐지만 그는 자세를 바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의 기도문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제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던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올려드리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한 그는 고문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응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때론 더 열심히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 응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영어로 Daddy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불경죄를 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죄를 징계하시는 분, 근엄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감히 "야훼(여호와)"라고 직접 부르지도 못하고. 자음의 소리만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시고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아스'는 말하기를 '많은 유대 문헌을 연구, 검토해 보면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Abba)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4:6)

여기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하고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것에 지혜와 능력에 다함이 없는 전능자이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억울한 경우를 만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므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김인수 칼럼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다



김 인 수 목사
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0)

2025년 1월,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조간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거주지 옥상에 10년 동안 암매장 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창원 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승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성 문제로 다퉜던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다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했다.

그는 범행 후 은익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cm 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 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 글을 읽고 범죄는 언젠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저지른 무서운 범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묻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발각되거나, 아니면 영구히 들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세상에서 발각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 그가 세상에 살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생명책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거짓말도 은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치러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참패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유다 족속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그의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돌무더기가 되어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둑질에 성공했다고 마음속으로 만족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행동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가 땅을 팔아 그 중 얼마를 감춘 후,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바쳤으나, 결국 부부가 한 날 성전 안에서 즉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부부가 비극적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죄 때문입니다. 이 두 부부는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마음가짐까지도 삼가고 조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샬롬.

단신

▶ 디사이플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부흥회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는 이찬수 목사(분당 우리교회)를 초청해 2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한다. 2/7(금) 오후 7:30, 2/8(토) 오전 6:30, 오후 7:00, 2/9(주일) 1,2부 예배. 주소: 17502 Daimler Street Irvine CA 92614, 문의: (949)502-4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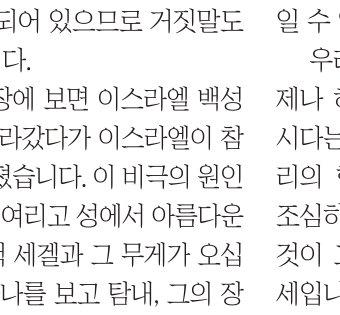
▶ 남가주 이단 대책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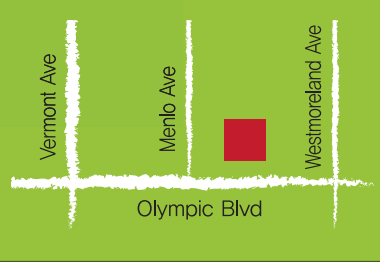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이단 세미나'가 오는 2월 18일 (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도 제공된다. 등록 마감은 2월 13일(금)까지이며, 문의는 미주복음방송(714-484-1190)으로 하면 된다.

또한,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는 2월 19일(수) 오후 7시에는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2월 26일(수) 오전 10시에는 나성영락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 가나안 성도 회복 프로젝트

비전라이프.교회(담임 목사 샬롬 김)에서 가나안 성도 회복을 위해 '비전 크루즈'를 주최한다. 총 31명의 참석자를 선정해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12주 동안 매 주일 오후 1시 '비전 찾기 과정'을 마치면, 5월 5-9일, 4박 5일 멕시코 무료 크루즈 여행을 하며 비전 실현 전략 세우기 과정을 갖게 된다. 등록 문의: www.visionlife.church,213-926-3425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강해 설교로 목회와 리더십 발휘

설교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진 않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목양하기

스콧 페이스, 짐 섀딕스 | 정성묵 역 | 디모데 | 206쪽 | 15,000원

강해 설교를 통해 리더십과 설교와 목회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역에 필수적인 여섯 가지 리더십(성경적, 영적, 전략적, 서번트, 상황적, 분별력)을 어떻게 설교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 제시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함으로써 리더십을 극대화하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충만하게 성도를 양육하는 동시에 사역의 균형을 맞춰가도록 방향을 지시해줄 것이다

35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신 아버지는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다. 그만큼 설교 외에도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었다.

성도 각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자녀 양육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섬김과 돌봄의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다. 교회는 건물도 기관도 아니지만 교인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도 관리해야 하고, 모든 모임에 기본적인 규칙과 행정 방침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일이 반드시 요구된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는 교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모든 과업을 단지 설교 한 편으로 마칠 수 없다고 아버지는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신학교에서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수년에 걸쳐 배웠다. 성경 원어를 배우고 기본적 해석학과 설교문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설교의 기초가 될 교리를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으로 살펴봤다. 성경 본문을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성경 상담의 기초도 배웠다. 솔직히 교회 행정이나 건물 관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을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물론 성경적 리더의 자질과 영성을 계발하는 기도와 묵상 훈련을 받은 적은 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 11년, 한 교회에서 가르치고 돌아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회와 리더십과 설교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계속 심사숙고하게 되는 목사의 책무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면서 설교와 목회가 간과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강력한 설교가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목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스콧 페이스와 짐 섀딕스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목양하기〉라는 책을 통해 '강해 설교로 세워지는 목회 리더십'이 가능함을 독자에게 설명했다. 둘 다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 교수이고, 페이스는 설교 및 목회 사역 교수, 섀딕스는 설교학 교수다. 두 사람의 협업으로 설교 및 목회 현장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설교학적 방법을 균형 있게 담아낸 책이 탄생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 제목은 모두 '강단에서의'로 시작하고, 그것은 두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확신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강단에서 목회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도 강해 설교에 충실하면서. 이들이 정의한 강해적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강해함으로써 그들을 돌보는 목회적 과정이다(19쪽)".

짐 섀딕스는 〈설교의 능력(서로사랑, 2019)〉이라는 책으로 설교학의 매우 중요한 원칙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단순히 설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할 것인지 배우기 원한다면 섀딕스의 책이 정말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스콧 페이스와 그가 함께 저술한 책에서 두 사람은 설교자가 자주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단순히 '설교만 잘하는 것'이다. 설교에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고자 하는 리더십이 빠져 있고, 설교에 성도를 돌보는 목회적 관점이 빠져 있는 것이다. 페이스와 섀딕스는 단순히 설교만 잘하면 모든 것이 알아서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는 목회적 필요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강단을 이용하라고 권하지 않는다(그들은 사실 강단을 그런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강해 설교를 충실하게 하면서도 그 적용의 단계에서 교회의 목회적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나,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주해에서 적용으로 설교를 준비하기보다 적용에서 주해로 바르게 설교를 준비하여 현실적인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제안한다. 두 저자가 이 책에서 목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계속 권면한 것 또한 큰 유익이 된다. 결국 이 과업은 목사 개인의 힘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령께 구하고 주님께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맡겨진 양들을 돌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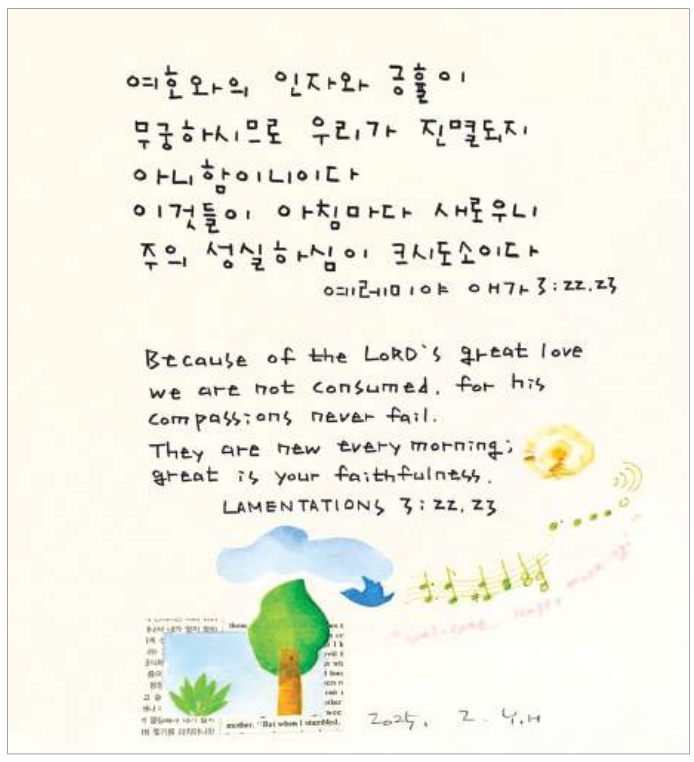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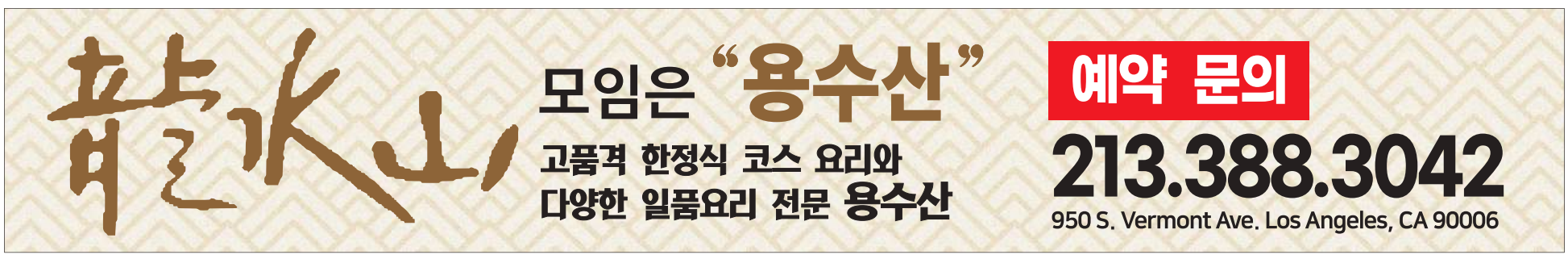
ⓒNycholas Benaia/ Unsplash.com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특별히 목사)가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 선포에 충성하면서도 주가 부탁하신 양들을 돌보는 일과 인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불러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목양하기에 기쁨으로 힘쓰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1)

〈중증외상센터〉 의료팀 집념에서 보이는 기독교 신앙?

작품 속 종교 색채 안 느껴지나
원작 웹소설 집필 작가, 목회자 자녀에 신앙생활 충실했던 의사
집필 속 하나님 인도하심 간증
물불 안 가리는 의료팀 집념 속
오지 봉사하는 기독인들 오버랩

박욱주 박사님이 OTT 넷플릭스 시리즈로 호평받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는 웹툰 및 웹소설 기반 작품으로,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가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지훈(백강혁 역), 추영우(양재원 역), 하영(천장미 역), 윤경호(한유림 역), 정재광(박경원 역) 등의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윤리적 지표: 의료계의 혼란과 부조리에 지지 않는 헌신적 의사

지난 1월 24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동명의 웹소설과 웹툰이 원작인 미디어 믹스 작품으로, 출중한 실력과 성품, 직업의식을 가진 외과의사 백강혁(주지훈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웅서사풍의 메디컬 드라마다.

원작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는 실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작가(필명 한산이가)가 집필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려 의학과 관련된 장르소설을 여러 편 집필했다. 그래서 이낙준 작가의 작품 속 의료진 활약상에 대한 묘사나 의학 관련 지식은 전반적으로 고증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작 소설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 드라마로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진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중증외상 분야 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일화들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대형종합병원에서 경영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증외상센터를 둘러싼 내부 알력과 다툼을 면밀하게 조명한다. 이 작품은 압도적 의술과 높은 정의감을 가진 의사가 의료계와 대형종합병원 내부의 권력투쟁, 관료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전개가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확고한 직업윤리를 가진 정의로운 언더독 캐릭터가 사회의 부조리를 통쾌하게 질타하고 해결해 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드라마 속 주인공과 주변인물에 관한 설정 중에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의학 만화 〈슈퍼닥터 K〉의 몇몇 에피소드에 대한 오마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주인공 백강혁이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사설군사기업(PMC) 소속으로 일하며 용병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점, 그저그런 실력의 의사들에게 압도적인 수술 실력을 보이며 그들의 성장을 이끄는 점, 그리고 자신이 성장시킨 후배 의사 양재원(추영우 분)에게 목숨을 내맡기고 수술을 받는다는 점이 두 작품 사이에 보이는 설정상 공통점이다.

작품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이 작품이 공개된 시점이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정부 의료개혁안을 놓고 의료계 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며(이번 의료개혁 분쟁은 2024년 2월 1일에 시작됐다) 의료공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시점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시류를 타고 작품의 흥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넷플릭스의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하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공백 사태 때문에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이때, 정부에 대해서든 의료계에 대해서든 실망감과 불안감을 갖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오로지 환자를 살리겠다는 열정과 탁월한 의술을 겸비한 이른바 '먼치킨' 주인공의 서사가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그 반작용으로 문학과 드라마 속 가상 영웅이 더욱 더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의사의 종교적 지표: 신앙심에서 기인하는 양심과 책임감을 따르는 의사

〈중증외상센터〉에 등장하는 백강혁과 동료들은 사실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이다. 의사로서 과도하게 정의로운 성품과 의지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의술 또한 완벽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허구적인 영웅서사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는 〈중증외상센터〉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의학, 메디컬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인기 메디컬 드라마 〈하얀거탑〉(2007)과 〈제중원〉(2010)의 극본을 쓴 이기원 작가는 〈메디컬 드라마에 대한 단상〉(2012)이라는 논문에서 메디컬 드라마 특유의 대중적 흡인력을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메디컬 드라마의 매력은 주로 '①딜레마 상황, ②건강과 질병이라는 소재, ③전문 의학 지식의 생소함과 참신함'이라는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유지된다.

메디컬 드라마의 '①딜레마 상황'이란 의사가 환자를 두고 어떤 치료 혹은 수술을 시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치료법이 실행가능한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기서 딜레마는 치료나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의술의 존재 여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병원 내부의 정치적 알력이나 의료제도 문제 등 의술 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대중은 이 딜레마 앞에서 꺼져가는 환자의 생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바심과 긴장감, 그리고 의료계 현실 속 부조리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②건강과 질병'이라는 서사 요소는 인간의 삶과 죽음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③전문 의학 지식의 생소함과 참신함'은 시청자들이 질병 치료나 수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따르는 만족감도 선사한다.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의사 백강혁의 활약상을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역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①딜레마 상황'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다. 이 작품에서 딜레마를 유발하는 주 원인은 주인공 백강혁의 강박에 가까운 투철한 의료윤리와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의료계 기득권층의 윤리적 퇴락이다. 백강혁은 몇 초 단위로 생사를 오가는 중증외상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삶의 목표를 둔 인물이다. 작중 설정에 의하면 백강혁은 어린 시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고 후 그의 아버지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치료를 거부당했고, 1시간이 지나 겨우 수술을 받았으나 조치가 늦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일은 백강혁이 물불 가리지 않고 외상환자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강박에 가까운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실은 그의 결의와 집념을 따라주지 못한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 자체보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익과 명성, 정치력 영향력에 욕심을 내고 있다.

의사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이상과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제약 사이 딜레마는 모든 의사들이 평생에 걸쳐 고민해야 하는 숙제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의술과 관련된 나름의 고유한 윤리적 이상이 있다. 그리고 이 이상은 주로 종교적 신념과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다. 서구의 경우를 보자.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사 코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of Cos)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며, 그의 신전에서 의사로 활동했다. 또 초대 기독교회 탄생 후 서구 의술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치유 사역이었다. 중세 이슬람 의학의 대가 이븐 시나(Ibn Sina)는 의학이 신의 권능과 존재를 합리적으로 인류에게 베푸는 방편이라 믿었다. 동양의 경우 도교와 불교 지식인들이 의학 발전과 의료윤리 정립에 크게 기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연단술이나 약학 등을 발전시켰고, 불교에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부처 약사여래(藥師如來)의 자비를 베푼다는 믿음에 따라 포교의 목적을 가지고 의학을 발전시켰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서 묘사되는 백강혁의 의사로서의 소명과 윤리의식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 특별한 종교적 색채가 깃들어 있지는 않다. 이는 아마 시청자들의 종교적 감성을 굳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드라마 제작진의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작품의 원작 웹소설을 집필한 이낙준 작가가 개신교 목회자 자녀인 동시에, 평생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한 기독교 방송 인터뷰에서 그가 의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작가로서의 활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작 작가의 발언에 유념한다면,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과 주변 동료들의 투철한 의료윤리 가운데는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기독교적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백강혁과 의료팀의 집념은 의료선교,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독교인 의사들의 열정을 닮아 있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전국 각지 기독교 지도자들, '비상시국 연합기도회'

김진홍 목사 "대동단결해 통일 · 성서한국 주춧돌 놓자"

전국지역교회연합회(전지연)가 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교회 비상시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 33:10-12)를 주제로 설교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발표 이후 정국의 소용돌이가 극심했다"며 "그러나 그런 소용돌이 중에서도 나라 전체를 볼 때 유익한 점들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일이 꼬이고 꼬여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로서는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유익한 점들에 대해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다는 말도 있듯이 국민 전체를 깨우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30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각이 크게 일어났다 ▲그간 그늘에 가려져 있어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였던 반체제 인사들, 친북·친중 인사들이 누구며 어느 자리에 똬리를 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겨레의 장래가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각심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일으킴에 큰 기여를 해 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동안 위축돼 있다가 크게 떨치고 일어나게 됐다 ▲매스컴이 변질된 가운데 유튜브와 각지의 시위대가 여론을 반전시켰다 ▲부정선거의 본색이 드러났다 등을 꼽았다.

김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아직 옥중에 있지만 그로 인해 선한 국민들이 나라 문제에 깨우치고 뭉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큰 공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 우방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심을 확신케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원래 좌파의 근거지였던 세종로(광화문)를 전광훈 목사와 그의 팀이 그동안 지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이번에 부산의 손현보 목사를 비롯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도 일어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고 뭉쳐야 한다"며 "대동소이하면 대동단결해야 한다. 서로 특징과 장점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뭉치면 이 나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통일한국 시대에 성서한국 주춧돌을 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 "이 나라 총체적 붕괴 다 드러나 이제 해결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뿐"

이어 발언한 전광훈 목사(국민혁명 의장)는 "저는 문재인이 북한에 이 나라를 넘기려 한 속셈을 가장 먼저 알고, 이를 순교 각오로 막아 왔다"며 "그는 그저 간첩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첩이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중 USB를 넘긴 것을 보라"고 했다.

전 목사는 "북한과 중국의 해커부대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해 왔다. 그런데 그들이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율 계산을 잘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이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다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학자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 황중선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이번 계엄은 합헌임을 설명하고, 현 군대의 기강 문제와 대한민국의 적화 위기에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바로잡을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뿐이라며, 기독교계의 각성과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제가 (반국가세력과) 싸움을 하다 보니 분노가 일어나 말을 거칠게 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전국지역교회연합회가 1일 '한국교회 비상시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기도회에서는 또 강헌식 목사(기하성 국제총회장) 사회로 최문수 목사(남북통일본부 이사장)가 내빈소개, 김일주 장로(대한민국장로연합회 공동회장)가 기도, 송광섭 목사(안산지역회장)가 성경봉독, 김영실·이연란 교수(총신대)가 특송했다.

또 김성기 목사(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가 취지설명하고, 신상범 목사(대한기독교교육협회 이사장, 기성 전 총회장)가 "한국교회의 사명과 영적 회복", 윤문기 목사(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 감독)가 "감옥에 갇힌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홍동명 목사(전지연 사무총장)가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 변화"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선규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한국교회보수연합 대표회장), 신상철 목사(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명예회장)가 격려사를, 최충하 목사(경기남부 대표회장)가 광고를 전하고, 함동근 목사(기하성 총회장)가 축도함으로 행사를 마치고 박춘근 목사(송탄남부전원교회)가 식사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리버풀 주교, 성추행 의혹 속 사임 성명"



성 비위 사건으로 사임을 선언한 리버풀 주교. ⓒyoutube cap.

리버풀 교구의 존 페룸발라스(John Perumbalath) 주교가 두 여성으로부터 제기된 성비행 의혹과 관련해 현직 사역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페룸발라스 주교는 10일(현지 시간) 리버풀 교구에 보낸 서한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언론의 재판과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채널 4 뉴스가 두 명의 여성에 대한 나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을 보도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잘못이 없음을 주장해 왔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웨일즈 산하 독립기관인 "국가보호팀(National Safeguarding Team)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증거부재'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첫 번째 의혹은 경찰도 조사했으나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공영 방송사인 채널 4를 비롯한 언론 보도가 나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인 것처럼 다뤘고,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취급했다"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페룸발라스 주교는 "즉시 교구를 이끄는 일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58세의 페룸발라스 주교는 지난 8일 리버풀 교구 고위 성직자들의 신임을 상실한 상태였다. 당시 교구 대표들은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그가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채널 4 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 여성이 페룸발라스 주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첼름스퍼드 교구의 브래드웰 주교로 재직하던 당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동의 없는 키스, 추행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요크 대주교 스티븐 코트렐(Stephen Cottrell)은 성명을 통해 "페룸발라스 주교의 사임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상황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룸발라스 주교의 사임은 영국 성공회 내 성비행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교회 내 투명한 조사와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성공회의 징계 절차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영국 성공회의 대처 방향과 추가 조사 진행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채널 4는 영국의 주요 공영 방송사로, 시사·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이번 보도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창한 기자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